

# 국내 대학도서관 OPAC의 패싯 내비게이션 분석에 관한 연구\*

## Analyzing Faceted Navigations of OPAC in Korean University Libraries

유영준 (Yeong-Jun Yoo)\*\*

### 초 록

패싯 내비게이션의 구성 요소인 패싯의 명칭과 하위 구성 용어, 패싯의 순서, 지나치게 많은 검색 결과의 수 등이 이용자 중심적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국내의 15개 대학도서관 목록에서 3개의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용자가 이들 용어에 대해서 느끼는 친숙도 조사도 함께 수행하였다. 국내 대학도서관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발행년도와 총서명 등의 패싯 명칭과 멀티미디어와 비도서, 미디어 자료 등의 하위 용어들은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으며, 목록규칙에서 사용된 용어들과 사서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았다. 그리고 패싯을 적용해도 검색 결과의 수가 많아지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합성 순위화와 같은 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하위 수준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것도 도서관 목록에 대한 이용자 경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how the main requisites of faceted navigation as names of facets, subterms of facets, order of facets, too many results were user-centric. On the research method, this research analyzed the results of the three keywords retrieved in the 15 university libraries' catalogs and how was user's familiarity to the terms. Although domestic universities have serviced facet navigation, the names of the facet of publication date and series title in format and the terms under the facets as multimedia and nonbook material, media material are too difficult intuitively to understand and there were lots of formal terms used in cataloging rules and the terms librarians have usually used. Because of the terms, there is high possibility to deteriorate users' satisfaction and usability to library catalog in future. Even though they serviced facet navigation, there was also weakness as too many results and the university libraries need to use relevance ranking method to solve the weakness. This research has found the possibility of being used too many of levels of the facets and this may also badly affect the users' experience to library catalog.

키워드: 차세대목록, 패싯 내비게이션, 이용자 인터페이스, 통합 검색, 이용자 경험  
next-generation catalog, facet navigation, user interface, integrated search,  
user experience

\* 본 연구는 2013년도 나사렛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나사렛대학교 점자문헌정보학과 조교수(youngjune@kornu.ac.kr)

■ 논문접수일자: 2013년 5월 20일 ■ 최초심사일자: 2013년 6월 5일 ■ 게재확정일자: 2013년 6월 26일  
■ 정보관리학회지, 30(2), 189-205, 2013.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2.189]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차세대 목록을 개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웹 검색 엔진과 다양한 웹 서비스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웹 검색 엔진들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이용자들이 정보나 지식에 대한 궁극적 증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정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관으로 도서관을 먼저 생각했었다. 하지만 웹 검색 엔진들이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나 검색 속도는 물론이며 검색 결과까지 도서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은 직관적이고 이용하기 쉬운 웹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하는 데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은 도서관과 사서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도서관계로 하여금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용자가 더 이상 도서관이 아닌 웹 검색 엔진을 최우선의 정보원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도서관 목록의 유용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OCLC의 조사에 따르면, 학부와 대학원생의 89%가 정보 검색의 시작을 웹 검색엔진에서 시작한다고 응답한 반면, 단 2%만이 도서관 웹 페이지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CLC, 2005/2006).

한편으로는 인터넷 서비스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전자정보원을 사용할 것인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질문했을 때, 82%의 학생들이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지'와 72%의 학생이 '무료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대답하였다(OCLC, 2006). 특히 학술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도서관이 인터페

이스를 이용자 중심적(user-centric)으로 바꾸고, 검색 결과를 개별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한다면, 대학도서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질과 무료 정보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서관 목록과의 비교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례는 구글이다. 구글의 웹 페이지는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인상을 주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용자에게 어떤 선택도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이용자가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맞게 제공해 준다. 하지만 도서관은 다양한 유형의 자원을 얻기 위해서 이용자로 하여금 여러 번의 검색을 반복하게 하는 면이 있다(Sadeh, 2008).

이와 같은 웹 서비스의 특징들을 도서관에서 수용하여 차세대 목록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차세대 목록의 서비스들이 도서관 이용자가 사용하기에 용이한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패킷 내비게이션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서비스인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대학도서관처럼 학술적인 정보를 다루는 곳에서는 검색 결과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University of California, 2005). 도서관 목록의 첫 페이지를 단일 검색 창으로 단순화 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인터페이스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패킷 내비게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지데이터와 접근점 개념을 활용해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하위 집합으로 세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의 대학도서관들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게 차세대 목록을 받아들였으며, 상당히 많

은 도서관에서 자원 발견(resource discovery) 또는 수직 탐색(vertical search) 개념을 받아들여 기존의 도서관 목록에서 검색해내지 못하던 자원들을 발견 또는 발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을 발견하는 것만으로 도서관 목록의 핵심 기능인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패킷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활용하여 검색 결과를 접근점의 관점에서 세분하는 패킷 내비게이션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차세대 목록을 도입한 국내의 대학도서관의 패킷 내비게이션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구축된 것인지를 중심으로 검색어를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 1.2 연구 방법

### 1.2.1 패킷 내비게이션 분석

전국의 대학도서관 중에서 차세대 목록을 도입한 대학을 서울, 충청, 전라, 경상도 등의 지역으로 안배하여 15개 도서관을 선정하였다. 15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경제학'과 '경제학개론', '나니아'의 세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패킷 내비게이션을 분석하였다. 경제학은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선정했으며, 경제학개론은 경제학보다 검색결과 수를 줄이기 위해서 선정했으며, 나니아는 대학도서관과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용어로 검색 결과의 수가 적어질 것을 예상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상이한 검색 결과를 갖는 용어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패킷 내비게이션을 분석하기 위해서 세 용어를 선택하였다. 분석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분석 내용은 각 패킷과 패킷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명칭, 패킷 내비게이션의 위치, 각 패킷의 순서 등이 이용자 중심으로 구축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패킷의 명칭과 순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1.2.2 용어 선호도 조사

패킷 내비게이션의 패킷 명칭으로 사용된 용어 중에서 발행처와 발행년도, 출판사와 출판년도, 총서와 시리즈도서 등의 용어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이 용어들 중에서 이용자에게 더 친숙하게 인식되는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를 간단하게 실험하였다. 이 실험은 Emanuel(2011)의 연구 결과에서 이용자들이 낯설거나 모호한 용어로 인해 패킷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하였다.

## 2. 선행 연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보다 나은 서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존의 도서관 웹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일부에서 도서관의 웹 서비스에서 패킷 내비게이션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그 이유로는 일상적인 탐색자들과 달리, 학술적 연구자들은 자주 대규모의 검색 결과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백 건의 서지 레코드들과 관련될 때는 적합성 순위화로는 충분하지 않으

며, 대규모의 검색 결과는 논리적인 하위 집합으로 제시되어야만 한다. 특히 검색된 결과의 많은 부분이 동일한 저작의 다양한 표현형들과 총서의 경우에, 특히 이용자는 좌절감을 느낀다. 두 경우 모두 여러 상이한 표제를 가질 때, 차세대 목록을 사용하지 않는 도서관에서는 여러 상이한 표제를 모두 포함하는 모든 레코드를 검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든 레코드가 검색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용자는 모든 레코드를 일일이 확인하고 표제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페이지의 검색 결과를 확인해야만 한다. 이렇게 검색된 결과가 지나치게 많을 때 그 검색 결과를 논리적 부분 집합 즉 패킷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University of California, 2005, p. 14).

최종 이용자에게 있어서 도서관 목록은 웹 사이트이며, 웹 사이트는 도서관 목록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둘은 하나며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용자의 요구와 기술적 요구, 도서관의 요구 등 세 요소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도서관 목록 인터페이스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였다 (Graham, 2012, p. 53). 여기에서 이용자의 요구는 패킷 내비게이션의 특정한 패킷에서 제공하는 검색 결과 제한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만족될 수 있으며, 기술적인 요구도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하기 원하는 파일 형식이나 어플리케이션과 연관된다는 측면에서 패킷 내비게이션에서 제공하는 패킷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텍스트 파일이나 녹음도서 등으로 한정된다. 패킷 내비게이션을 활용해서 시각 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 경험이 도서관 목록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한 연구도 있다. 이용자 경험의 관점에서 도서관 목록을 분석한 Sadeh(2008)는 이용자가 도서관의 인터페이스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이용자들이 익숙하고 배우기 쉬운 자원 발견 인터페이스를 원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이용자들은 빠르게 결과를 검색하며, 정확한 키워드 입력이 필요 없는(precision searching) 방식을 기대한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자료를 한번에 통합적으로 검색하기를 원한다. 네 번째로는 일반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이용자와의 상호 작용을 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Sadeh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제안이 패킷 내비게이션의 채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 검색을 하되 검색 결과는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제공하며, 특정 패킷을 선택함으로써 이용자와 도서관 목록이 상호작용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선택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 유형 등으로만 검색 결과를 한정하는 것이 패킷 내비게이션의 핵심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패킷 내비게이션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도 있는데, 패킷 내비게이션의 패킷을 표현한 용어와 순서, 위치 등이 이용자 중심적인지를 평가한 논문으로 다음의 두 논문을 들 수 있다. Bowen(2008)은 패킷으로 검색 결과를 브라우징 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편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다. 그 이유는 패킷은 일반적으로 이용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많은 하위 수준을 선택하도록 하는 측면과 패킷 내비게이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패킷의 명칭과 패킷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의 명칭이 패킷 내비게이션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패킷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으므로 패킷과 관련된 용어들을 선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런 면에서 Emanuel(2011)의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이 일부 용어의 모호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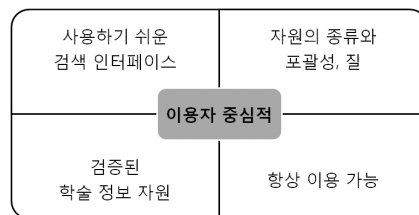
국내의 차세대목록 관련 연구들은 모두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논문들이 대부분이었다. 심경(2008a/2008b)은 차세대 목록에서 AquaBrowser와 WorldCat Local의 두 시스템을 소개하였으며, 패킷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차세대 목록의 전체 기능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유영준(2011)은 국외의 9개 차세대 목록 시스템의 패킷 내비게이션의 특징과 장단점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는데, 패킷을 구성하는 용어들이 이용자 지향적이어야 패킷 내비게이션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 논문과 관련이 가장 깊다고 할 수 있다. 윤정옥(2010)은 WorldCat Local 기반으로 구축된 University of California 도서관의 '차세대 메빌 파일럿'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Blacklight 기반으로 구축된 Stanford University 도서관의 'SearchWorks'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중억과 박승진(2007)은 전통적인 OPAC의 인터페이스와 차세대 OPAC의 인터페이스를 검색창, 검색항목, 검색기법, 정렬기능, 검색결과 디스플레이, 검색결과 피드백에 중점을 두어서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박지영(2012)은 한국십진분류법의 조기표를 활용하

여 패킷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연구는 전통적인 도서관의 분류체계인 KDC의 조기표를 활용해서 패킷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개선하려고 시도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3.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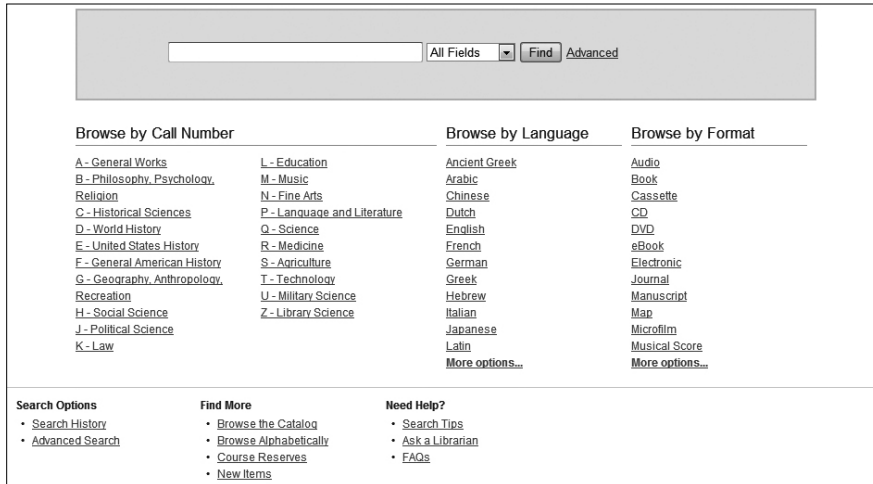
#### 3.1 차세대 목록의 개발 배경

차세대 목록은 기본적으로 웹의 편의성에 익숙해진 이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개발되었다(Breeding, 2007). 구체적으로 보면 핵심은 도서관 목록을 이용자 중심으로 디자인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세대 목록 개발의 구성 요소 중의 하나는, 이용자들이 웹 검색 엔진처럼 사용하기 쉬운 검색 인터페이스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서관 목록의 인터페이스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2> 참조).



<그림 1> 차세대 목록의 개발 배경

Sadeh(2008)에 의하면, 기존의 도서관 목록의 인터페이스는 복잡한 메뉴로 인해서, 도서관 사이트의 콘텐츠가 분산되어 있어서 이용자가 사용하기에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다고 할 수



〈그림 2〉 오픈 소스 차세대 목록인 VuFind

있다. 따라서 구글과 같은 웹 검색엔진처럼 단일의 검색 창만을 제공하여 모든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한 번의 검색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도서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장점인 자원의 범위와 가치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분명히 도서관은 이 요소에서는 웹 서비스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자원을 보다 이용자 중심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나 도구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정보제공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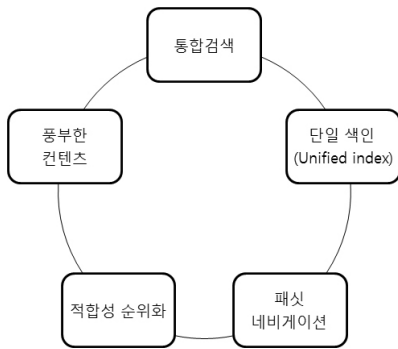
세 번째 배경 요소는 SNS와 클라우드 컴퓨팅처럼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물론 이 요소는 아직 국내의 도서관보다는 웹 포털에서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도

서관의 서비스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차세대 목록의 개발 배경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는 이용자들이 이미 출판사나 도서관의 검증 절차를 거친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원에 관심을 둔다는 점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OCLC의 조사 결과처럼, 이용 가치가 있으면서 동시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도서관외에서는 얻기가 어렵다. 웹 검색엔진에서는 무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가치 있고 검증된 자원을 이용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3.2 차세대 목록의 특징

앞에서 기술한 배경 요인으로 개발된 차세대 목록의 특징은 〈그림 3〉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Breeding, 2007; Yang and Hofmann, 2010).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통합 검색은 단순한 검색 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

며, 단일색인은 인쇄 자료와 디지털 자료의 색인을 통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지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적합성 순위화는 이미 정보검색모형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풍부한 콘텐츠는 도서관과 웹 서비스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패킷 내비게이션은 실제로 이용자가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으며, 문헌정보학에서 오랫동안 연구 대상이 되어 온 정보조직 수단의 새로운 가능성을 차세대 목록에 적용한 것이므로, 분석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림 3〉 차세대 목록의 특징

패킷 내비게이션은 검색 결과를 접근점과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문헌정보학의 패킷 분석기법으로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패킷 분석으로 검색 결과를 세분함으로써 검색 결과의 크기를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 요구에 적합하게 구분하여, 이용자가 검색 결과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결과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찾도록 하는 이용자 중심적인 서비스이다. 하지만 패킷 내비게이션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패킷으로 검색 결과를 나누어도 한 패킷 내에 지나

치게 많은 검색 결과가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이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적합성 순위화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적합성 순위화를 차세대 목록의 특징에 포함시킨 이유다. 적합성 순위화기법은 패킷 내비게이션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므로 패킷 내비게이션과 함께 다루었다. 이 논문에서 '경제학'과 '경제학개론'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했을 때, 지나치게 많은 검색 결과가 한 패킷에 포함되어서 패킷 내비게이션을 적용한 의미가 상실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결과는 패킷 내비게이션에서 피할 수 없는 결과이지만, 패킷 내에서 적합성 순위화 기법을 적용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적합성이 높은 결과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콘텐츠는 도서관 내의 자원뿐만 아니라 도서관 외부의 자원도 도서관의 자원인 것처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대학 내에서 생산하는 학위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등도 웹 검색엔진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자원이므로 도서관이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 3.3 패킷 내비게이션

패킷 내비게이션은 〈그림 3〉과 같이 검색 결과를 의미 있는 단위나 특정한 관점으로 세분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웹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하면, 웹 문서, 이미지,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유형의 웹 자원으로 나누어서 보여주는 방식과 유사한 면이 있다. 실제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검색 결과를 보면, 검색 창에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오

른쪽 위에 보면 '통합검색'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번의 검색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세분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패킷 내비게이션과 유사하다.

하지만 도서관의 패킷 내비게이션에서 의미 있는 단위나 특정한 관점은 자료유형, 저자, 주제, 출판사, 발행년도 등으로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패킷들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주로 서지사항에서 검색 접근점이 될 만한 요소들을 추출하면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MARC 레코드의 데이터 요소에서 쉽게 추출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패킷들을 추출하는 이유가 패킷 내비게이션의 핵심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개별 이용자의 정보 요구와 기술적인 요구 사항에 맞추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경우에는 텍스트나 녹음도서의 자료유형이 아니면, 아무리 적합한 검색 결과를 제공해도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 이용자에게 적합한 자료유형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패킷 내비게이션의 유용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패킷 내비게이션은 전통적인 접근점을 바탕으로, 그 개념을 도서관 목록에 대한 이용자의 경험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패킷 내비게이션을 적용하면, 검색 과정을 기존에 비해 더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도서관 목록에서는 검색을 하기 위해서 자료유형이나 표제, 저자명, 주제명 등의 필드를 선택한 후에 검색을 진행하였지만, 패킷 내비게이션을 적용한 도서관에서는 이용자가 전통적인 방식의 추가적인 선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 도서관 목록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이용자의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단일 검색 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패킷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적합한 하위 검색 결과로 보여주기 때문에, 기존의 도서관 목록의 검색 방식이나 인터페이스보다 간단하다. <그림 4>는 OCLC가 개발한 WorldCat Local의 패킷 내



<그림 4> OCLC의 WorldCat Local의 패킷 내비게이션

비게이션이다. 다양한 패킷과 패킷의 명칭, 패킷을 구성하는 하위 용어, 패킷을 하위 수준으로 전개하는 방식 등을 보여주고 있다.

#### 4. 패킷 내비게이션 분석

패킷 명칭과 패킷의 하위 구성 용어는 Emanuel (2011)의 연구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을 국내 도서관의 패킷 내비게이션 분석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패킷의 순서는 보편적으로 이용자가 선호하는 패킷의 순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패킷의 화면 배치는 인터페이스와 관련된다. 그리고 검색 결과의 수는 패킷 내비게이션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단점이기 때문에 분석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제학’, ‘경제학개론’, ‘나니아’ 등 세 개의 검색어를 선택한 이유는 검색결과 수가

많이 나올만한 용어 2개와 적게 나올만한 용어 1개로 구성하였다. ‘경제학’과 ‘경제학개론’의 검색한 결과는 패킷의 명칭과, 패킷을 구성하는 하위 구성 요소, 패킷의 순서, 패킷의 화면배치 등을 분석할 때는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검색 결과가 가장 적게 나온 ‘나니아’의 검색 결과는 검색 결과의 수를 분석할 때는 제외되었다.

##### 4.1 패킷의 명칭

패킷 내비게이션을 구성하는 용어와 패킷의 순서는 <표 1>과 같다. 먼저, 각 패킷의 용어를 보면, 자료유형과 콘텐츠 유형이 동의어로 경쟁 관계에 있다. 하지만 콘텐츠유형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대 도서관의 콘텐츠유형 패킷에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기사, E-Journal, E-Book, 교수

<표 1> 패킷 내비게이션의 용어와 순서

도서관	패킷의 명칭
경북대	자료유형, 주제어, 발행일, 도서관, 언어
부산대	소장기관, 콘텐츠유형, 발행년도, 출판사, 저자, 총서명
서울대	소장기관, 콘텐츠유형, 발행년도, 대출횟수, 주제, 출판사, 저자, 총서명
성균관대	소장기관, 콘텐츠유형, 발행년도, 대출횟수, 주제, 출판사, 저자, 총서명
연세대	자료유형, 소장처, 저자, 발행년, 언어, 주제분류, 주제
이화여대	자료유형, 저자, 발행년, 주제분류, 언어, 주제어, 총서명, 출판사, 수록매체, 소장처
전주대	소장기관, 콘텐츠유형, 발행년도, 대출회수, 주제, 출판사, 저자, 총서명
중앙대	콘텐츠유형, 발행년도, 소장기관, 주제, 대출횟수, 저자, 출판사, 총서명
충남대	자료유형, 출판사, 발행년도, 언어, 소장처
카이스트	자료유형, 출판년도, 자료형태, 언어, 신착도서, 시리즈도서, 소장기관, 소장위치
한남대	자료유형, 저자, 출판사, 언어, 발행년도, 언어
전북대	자료유형, 출판사, 발행년도, 언어, 소장처
고려대	자료유형, 저자, 발행년, 주제분류, 언어, 출판사, 소장처/자료실
동아대	도서관, 주제, 자료유형, 저자, 발행년, 언어, 검색DB/Collection, 저널명
한성대	소장기관, 대자료유형, 중자료유형, 출판년도, 주제, 대출횟수, 총서명, 저자, 출판사

저작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패킷에 속한 유형들은 텍스트 형태의 콘텐츠가 주된 매체들이다. 따라서 콘텐츠 유형은 적합한 용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모호한 용어는 이용자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며,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자료유형은 이전부터 도서관에서 사용해 오던 용어이며, 이용자에게도 낯설지 않은 용어이므로 콘텐츠 유형보다 더 이용자에게 익숙하고 이용자 중심적인(user-centric)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횡수로도 자료유형이 10회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발행년도와 출판년도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사서들이 생각할 때는 두 용어가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발행년도가 목록규칙에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용어이면서, 사서들에게는 익숙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사서들이 발행년도를 패킷의 명칭으로 선택하면서 별 고민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용자에게는 오히려 발행년도가 낯설며, 출판년도가 더 쉽게 다가오는 용어로 보인다. 그래서 충남에 소재한 대학도서관 학부생 107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용어를 선택하도록 조사하였다. 발행처와 출판사 중에는 95%가 출판사를, 발행년도와 출판년도에서는 66%가 출판년도를 선택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서도 사서들에게 익숙한 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Emanuel(2011)과 Bowen(2008)의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표 1〉에 의하면, 주제를 나타내는 용어들이

‘주제어’, ‘주제’, ‘주제분류’ 등 다양하게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각 대학도서관이 사용한 용어를 모은 것이다. 성균관대 도서관의 경우에는 이 중 두 용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용어의 구성 요소에는 분류번호, 분류표의 표목, 저자, 주제명 등 다양하다. 특히 전주대 도서관에서는 분류번호를 패킷의 구성요소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분류 번호를 모르는 이용자에게 이 패킷은 무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사서 중심적인(librarian-centric) 용어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분류표의 전문 용어로 표현된 표목도 이용자에게는 낯설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주제명으로 변환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자 패킷이 있는 경우라면 저자 패킷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소장기관, 소장처, 도서관, 소장위치 등도 유사한 용어들로 소장기관이 이용자에게 다가가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소장위치는 카이스트 도서관에서만 나타나는 용어로 도서관의 이름에 더해져 층수와 도서실명 등 보다 자세하게 이용자에게 소장정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이용자를 배려한 용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총서명 또한 이용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로 보인다. 이용자에게는 시리즈도서가 쉽게 용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제시한 조사에서 총서명과 시리즈도서 중에서 선호도조사를 한 결과, 79%의 이용자가 시리즈도서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사서 중심적인 용어의 선택이 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 목록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강화시켜서, 결국에는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화여대 도서관에서 채택한 수록매체 패킷에 속한 용어들이 자료유형에 속한 용어들과 중복된다. 이와 같이 상이한 패킷에 유사한 용어들이 분산되는 것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출횟수가 맞춤법 상 바른 용어인데, 대출회수라고 표기한 사례가 포함된 것은 수정해야 할 부분이다. 맞춤법으로 인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검색DB/Collection은 직관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모호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학술지DB와 같은 용어를 고려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패킷 명칭과 관련해서 카이스트 도서관에서는 자료유형과 자료형태라는 유사한 패킷을 제시했다. 그런데 자료형태는 원문 있음과 원문 없음의 하위 용어를 갖는데, 각각의 용어를 선택하면 결과를 자료유형별로 보여준다. 이 패킷은 패킷 내비게이션의 유용성 관점에서 볼 때,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결과를 자료유형별로 보여주는 것은 하지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페이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러 페이지에 분산된 검색 결과를 모두 확인하는 이용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패킷 내비게이션은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도서관 자료를 요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용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은 본문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직접 찾도록 유도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 분석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패킷을 구성하는 용어들을 하위 수준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위

수준으로 전개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위 수준의 용어로 전개하는 것은 가능하면 한 수준을 초과해서 더 세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나치게 용어의 수준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이용자가 여러 번의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특히 사용성에 있어서 만족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 4.2 패킷의 하위 구성 용어

여기에서는 패킷을 구성하는 하위 용어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서술하겠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자료유형 패킷에 속하는 용어들이 주로 분석 대상이 되었다. 그 이유는 자료유형 패킷을 제외하면, 고유명사로 구성된 저자, 출판사, 숫자인 출판년도, 대출횟수, 통제어휘로 정해진 주제명 등은 이용자가 패킷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자료유형의 용어처럼 도서관의 용어와 이용자의 용어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Antelman과 Lynema, Pace (2006)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앞에서 제시한 <그림 4>의 WorldCat Local은 하위 수준의 용어를 한 수준만으로 전개하면서, 이용자가 선택하는 횟수를 한 번으로 줄였다. 하지만 <그림 5>의 국내 대학 도서관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최소 두 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도서관 목록에서 다양한 접근점을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불편을 이용자가 겪게 된다.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보다 쉽고 사용하기 편한 웹 검색에 익숙한 이용자는 도서관 목록에서도 동일한 수준이나 유사한 수준의 편의성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큰 차이일 수도 있다.

먼저, <그림 5>에 있는 용어 중에서 기사와 E-Journal은 각각 어떤 유형의 자료를 가리키는 지 이용자가 이해하기가 모호하다. 기사는 신문 기사인지 학술지기사인지, E-Journal은 기사와 다른 전자저널의 이름만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하위 용어를 선택하면, E-Journal에는 학술지의 URL도 포함되어 있지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등이 섞여 있으며, 기사는 학술지기사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 콘텐츠 유형 (8)	
단행본	(4280)
연속간행물	(77)
학위논문	(110)
멀티미디어	(27)
기사	(21)
E-Journal	(44)
E-Book	(45)

<그림 5> 모호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한 사례

또한 멀티미디어를 선택하면, 비디오테이프, 컴퓨터파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방식으로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도서관이 다수 있었다. 각 자료유형마다 비디오, 컴퓨터파일 등의 용어로 세분해서,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E-Book도 멀티미디어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용어를 세분하는 것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이화여대 도서관은 모호한 용어인 기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자료유형 패킷의 용어들을 단행본, 연간물, 오디오, 비디오 등으로 구분하여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한남대 도서관도 <그림 6>처럼 단행본, ebook, 컴퓨터파

일, 오디오 등의 구체적인 용어를 제시함으로써, 이용자가 쉽게 용어를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패킷을 구성하는 용어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여러 자료유형을 동시에 포함하는 용어보다는 가능하면,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유형	
· 단행본	(454)
· 기사	(32)
· ebook	(7)
· 컴퓨터파일	(5)
· 오디오	(1)

<그림 6> 직관적이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한 사례

그리고 중앙대 도서관에서 선택한 용어인 미디어자료에는 비디오테이프 자료만 포함되어 있었다. 비디오라는 쉬운 용어를 선택했다면, 이용자가 검색결과를 내비게이션 하는 것이 용이했을 것이다. 연세대 도서관은 저널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는데, 이 용어도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용어로 보인다. 패킷이나 패킷을 구성하는 용어들을 선정할 때는 이용자가 그 용어들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서들의 이용자에게 대한 인식이 이러한 용어 선정에서도 드러난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패킷 내비게이션의 용어를 확정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용어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이용자의 도서관 목록에 대한 경험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대 도서관은 전자저널과 함께 연간물이

리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에서 떠오르는 것은 일 년에 한 번 간행하는 연감과 같은 자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 단어를 선택한 결과는 전혀 달랐다. 연속간행물을 줄인 용어였다. 다른 도서관에서는 이런 용어를 선택한 사례가 없었다.

그리고 성균관대 도서관은 비도서라는 용어를 연속간행물, 학술지논문, 전자정보, WebDB 등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도서는 포괄적이어서 이용자의 구체적인 정보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용어이며, 함께 사용된 용어들과 의미가 겹치는 부분도 있다. 비도서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CD-ROM, 카세트테이프, DVD, 비디오, 마이크로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비도서의 하위 용어들을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제시하면,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 요구에 맞는 자료 유형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도서처럼 일반적인 용어 아래에 다양한 자료 유형의 검색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면, 이용자가 결과를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다.

차세대 목록을 도입한 배경은 이용자의 도서관 목록에 대한 경험을 개선하고,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고 검증된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도서관보다 웹 검색 엔진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이미 나타났으므로, 도서관 목록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4.3 패킷의 순서

〈표 1〉에 의하면 패킷의 순서에서 일 순위의

경쟁관계에 있는 패킷은 자료유형과 소장기관이다. 그런데 두 패킷 중에서 이용자 중심적인 패킷 즉 이용자의 정보 요구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패킷은 자료유형이다. 그런데 일부도서관에서 소장기관을 첫 번째 패킷으로 배열한 것은 이용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보다 대학 내의 분관의 존재를 알려 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5개 도서관 중에서 2개 도서관은 소장기관이 한 곳 밖에 없는데도, 소장기관 패킷을 만들어서 소장처를 밝히고 있다. 또한 고려대 도서관에서는 6개의 소장기관을 선택하면, 30개가 넘는 도서관 내의 위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용어를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 입장에서 친절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소장기관을 선택했을 때, 30개가 넘는 항목을 만난다면, 이용자는 오히려 더 이상 패킷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소장기관을 제시하는 것이 여러 분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이라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패킷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보 요구에 맞는 자료를 의미 있는 단위로 세분하여 확인한 후에는 청구기호를 사용해서 이용자 스스로 서가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자 자신이 청구기호를 확인하고 원하는 자료를 찾아 가는 과정에서 이용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적인 부분은 도서관의 만족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경험은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느끼는 감정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 이외의 패킷의 순서를 보면, 발행년도, 주제와 저자 등 검색의 접근점이 순서상 앞에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발행년도와 언어보다 주제

나 저자와 같은 접근점을 순서상 앞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는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도 출판사의 순서는 뒤로 배치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 특정한 출판사의 자료를 선호하는 경우는 다른 패시를 선호하는 것보다는 드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4.4 패시의 화면 배치

패시 내비게이션을 화면 왼쪽에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오른쪽에 배치할 것인지도 도서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결과를 보면, 왼쪽에 배치한 도서관이 9개이며, 오른쪽에 배치한 도서관이 6개이었다. 미국의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도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유영준, 2011). 그리고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한 후, 검색 결과를 다양한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맞게 세분하는 것이 패시 내비게이션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개별 검색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패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도록 왼쪽에 패시 내비게이션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쪽이 도서관 인터페이스에 적합한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5 검색 결과의 수

〈그림 7〉은 ‘경제학’으로 검색한 동아대학교의 패시 내비게이션 중 자료유형 패시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학’으로 검색했을 때, 모두 8개의 패시가 제시되었지만, 일부 패시

의 결과에서 10,000개를 넘을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결과가 포함되었다. 이렇게 일반적인 검색어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검색어의 외연이 넓기 때문에, 패시 내비게이션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결과는 패시 내비게이션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통합검색으로 모든 유형의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차세대 목록의 주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b>자료유형</b>	
기사	(10,563)
단행본	(4,018)
학위논문	(2,130)
저널	(181)
전자책	(115)
추가 옵션	▼

〈그림 7〉 지나치게 많은 패시 내의 검색 결과 수

하지만 학술지에 실린 기사처럼 많은 결과를 이용자가 선택했을 때, 적합성 순위화(relevance ranking) 등의 기법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경험을 만족시키는 기법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차세대 목록의 특징에 적합성 순위화를 포함시킨 것도 패시 내비게이션의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패시 내비게이션은 목차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며, 결국은 이용자가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은 생략될 수 없다. 따라서 검색 결과를 순위화 하는 기법을 도서관 목록에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5. 요약 및 결론

차세대 목록은 웹 서비스에 익숙한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패킷 내비게이션은 검색 결과 전체 집합을 자료 유형, 저자, 주제 등의 하위 집합으로 나누어서,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 요구를 만족시키는 인터페이스다. 특히 학술 정보를 검색할 때, 지나치게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오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패킷 내비게이션을 채택하고 있는 국내 대학도서관 15개를 분석하였는데, 패킷 명칭에서는 자료유형이 콘텐츠 유형보다 이용자가 인식하기 쉬운 용어로 보이며, 목록규칙에서 사용하는 발행년도가 사용되었지만, 이용자에게는 낯선 용어였다. 출판사의 경우는 발행처가 이용자에게 매우 낯선 용어였기 때문에 출판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총서명을 선택했지만, 이용자에게는 시리즈 도서와 같은 쉬운 용어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보인다. 주제와 관련된 용어는 세 가지 용어가 사용되어서 이용자가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패킷 내비게이션은 분명히 이용자가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지만, 용어가 사서 중심적이라면 그 유용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패킷을 하위 수준으로 전개할 때는 한 수준 이상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패킷을 구성하는 하위 용어들의 경우에는 자료유형 패킷의 용어들이 주로 분석되었다. 멀티미디어와 비도서, 미디어자료 등은 비디오와 오디오 등 보다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이용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

며, 패킷을 구성하는 하위 용어가 지나치게 많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사와 같이 분명하지 않은 용어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패킷의 순서에서는 자료유형이 매체 유형을 나타내므로 가장 앞서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패킷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이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더불어 패킷 내비게이션의 위치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낫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검색 결과의 수가 여러 페이지에 걸칠 정도로 많을 때는, 검색 결과를 순위화 하는 보조적인 기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패킷 내비게이션은 단순히 검색 결과를 의미 있는 단위로 세분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도서관 목록에서 다양한 접근점을 선택하게 하거나 발행년도와 언어와 같은 검색 제한 방법 등 이용자 스스로 다양한 검색 방법들을 찾아서 일일이 입력하거나 선택하던, 방식을 이용자가 키워드만을 입력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 이용자가 도서관 목록에 대해서 가졌던 불편과 복잡함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 요구에 적합한 자료 유형, 발행년도, 언어 등과 같은 접근점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도서관 목록에 대한 편의성과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패킷 내비게이션은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따라 검색 결과를 세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용되는 용어를 이용자 중심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웹 검색 엔진이나 웹 서비스의 사용하기 용이하고 배우기 쉬운 인

터페이스와 이러한 이용자 경험에 익숙한 이용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패킷 내비게이

션 이외의 차세대 목록의 다른 구성 요소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구중익, 박승진 (2007). 차세대 OPAC의 인터페이스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2), 61-88.
- 박지영 (2012). KDC 조기표를 이용한 국내서의 패킷 내비게이션 기능 개선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1), 47-63.
- 심경 (2008a).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사례: AquaBrowser. 도서관문화, 49(10), 48-56.
- 심경 (2008b).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사례(2): WorldCat Local. 도서관문화, 49(11), 54-61.
- 유영준 (2011). 차세대 도서관 목록에서의 패킷 내비게이션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3), 13-30.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3.013>
- 윤정옥 (2010). 차세대 도서관 목록 사례의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1), 1-28.
- Antelman, K., Lynema, E., & Pace, A. K. (2006). Toward a twenty-first century library catalog.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25(3), 128-139.
- Bowen, J. (2008). Metadata to support next-generation library resource discovery: Lessons from the eXtensible catalog, phase 1.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27(2), 6-19.
- Breeding, M. (2010). *Next-Gen Library Catalogs*. New York: Neal-Schuman Publishers, Inc.
- Emanuel, J. (2011). Usability of the VuFind next-generation online catalog.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30(1), 44-52.
- OCLC (2005). *Perceptions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resources: A report to the OCLC membership*. Retrieved from <http://www.oclc.org/reports/2005perceptions.htm>
- OCLC (2006).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resources*. Retrieved from <http://www.oclc.org/content/dam/oclc/reports/pdfs/studentperceptions.pdf>
- Sadeh, T. (2008). User experience in the library: A case study. *New Library World*, 109(1/2), 7-24. <http://dx.doi.org/10.1108/03074800810845976>
- Graham, T. (2012). Rethinking library web sites with user experience design: Conference report. *Journal of Electronic Resources Librarianship*, 24(1), 53-54.  
<http://dx.doi.org/10.1080/1941126X.2012.657114>

- University of California (2005). Libraries bibliographic services task force: Rethinking how we provide bibliographic services for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Retrieved from <http://libraries.universityofcalifornia.edu/sopag/BSTF/Final.pdf>
- Yang, S. Q., & Hofmann, M. A. (2010). The next generation library catalog: A comparative study of the OPACs of Koha, Evergreen, and Voyager.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29(3), 141-150.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Gu, Jung-Eok, & Kwak, Seung-Jin (2007). A study on next generation OPAC's interface and func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8(2), 61-88.
- Park, Ziyoung (2013). Improving faceted navigation using the KDC tables for the Korean bibliograph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1), 47-63.
- Shim, Kyung (2008a). The example of the next-generation catalog: AquaBrowser. *KLA Journal*, 49(10), 48-56.
- Shim, Kyung (2008b). The example of the next-generation catalog (2): WorldCat Local. *KLA Journal*, 49(11), 54-61.
- Yoo, Yeong-Jun (2011). A study on faceted navigation in next-generation library catalo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3), 13-30.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3.013>
- Yoon, Cheong-Ok (2010). A case study on the next generation library catalog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1), 1-28.

